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7년 3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4.0% 증가(전월대비 1.2% 증가)

- 제조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11.1%), 금속가공(-7.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24.0%), 기계장비(17.1%)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함(전월대비 1.1%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3.6%), 협회·수리·개인(-2.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7.8%), 보건·사회복지(11.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전월대비 0.4% 증가).

◆ 2017년 3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2.8%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1.7%)는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5%), 가전제품 등 내구재(0.8%)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함(전월대비 보합).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8.5%)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8.8%) 투자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2.8% 증가함(전월대비 12.9%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2.6%), 토목(6.4%)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28.6%) 및 기계설치, 항만·공항 등 토목(-9.5%)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24.0% 감소함.

◆ 2017년 3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선행종합지수도 전월대비 0.2%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함.

◆ 2017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9%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2017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66(2015년=100)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함(전월대비 0.1%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0.3%)을 제외한 교통(5.4%), 식료품·비주류음료(2.6%), 음식·숙박(2.2%) 등에서 상승함.
 - 2017년 4월 생활물가지수는 102.88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함(전월대비 0.3%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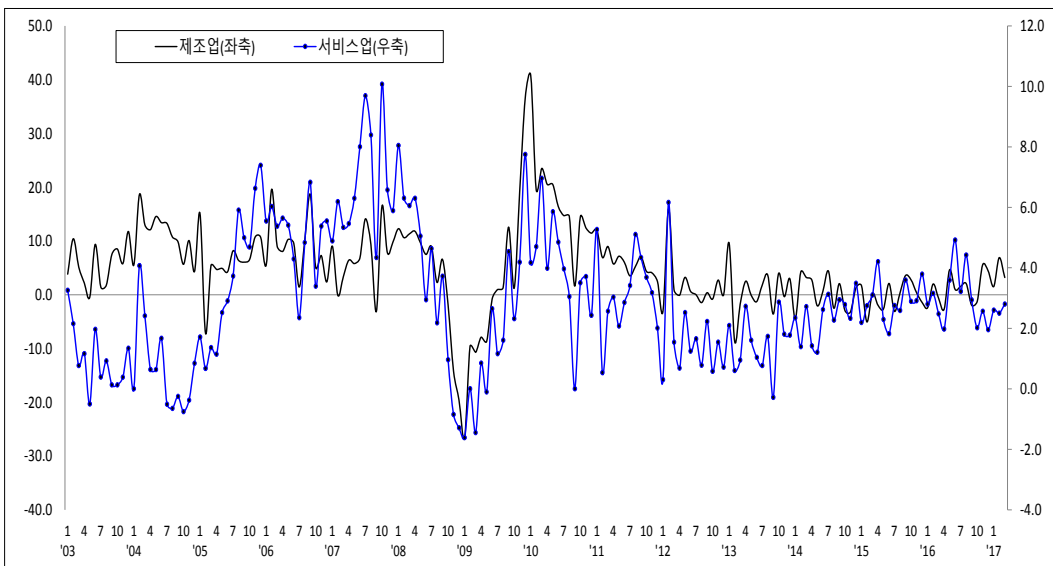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3월	1/4p	3월 ^a
생산	광공업 생산	-1.7	-0.7	0.0	-2.0	0.0	-0.9	-1.5	-0.2	0.0	-0.6	-0.2	1.0	0.6	2.8	1.0	2.3	3.6	3.0(1.0)
	제조업 생산	-1.8	-0.8	0.0	-2.2	-0.1	-1.0	-1.4	-0.4	0.1	-0.6	-0.4	1.1	0.7	2.9	1.0	2.0	3.7	3.2(1.1)
	출하	-2.3	-1.0	-0.2	-1.3	-0.2	-0.7	-1.3	0.8	0.3	-0.3	-0.8	1.5	0.0	2.3	0.6	0.6	3.3	1.4(1.1)
	내수	-2.8	-1.2	-0.4	-2.6	0.2	-0.7	-0.1	1.0	1.6	0.5	0.9	1.0	0.0	3.8	1.3	0.5	2.9	0.9(1.3)
	수출	-1.7	-0.6	0.1	0.3	-0.6	-0.6	-2.5	0.5	-1.4	-1.0	-2.8	2.0	0.0	0.5	-0.1	0.6	3.6	2.0(0.9)
	서비스업생산	0.8	1.7	0.7	2.7	2.2	2.8	2.5	2.8	3.1	2.9	2.8	3.7	3.6	2.1	3.0	3.2	2.6	2.8(0.4)
소비	소비재 판매	0.2	1.1	0.7	1.9	1.6	1.6	2.9	3.2	5.7	3.4	4.6	6.2	3.6	2.5	4.3	3.3	2.0	1.6(0.0)
투자	설비투자	-15.4	-10.0	-4.7	5.1	4.6	8.4	5.2	10.0	1.7	6.2	-7.1	0.8	-4.9	5.9	-1.3	-8.4	17.8	22.8(12.9)
물가		1.1	1.6	1.4	1.0	1.3	0.6	0.5	0.7	1.1	0.8	1.1	0.9	0.9	1.5	1.0	0.8	2.0	1.9(-0.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2017년 물가상승률은 4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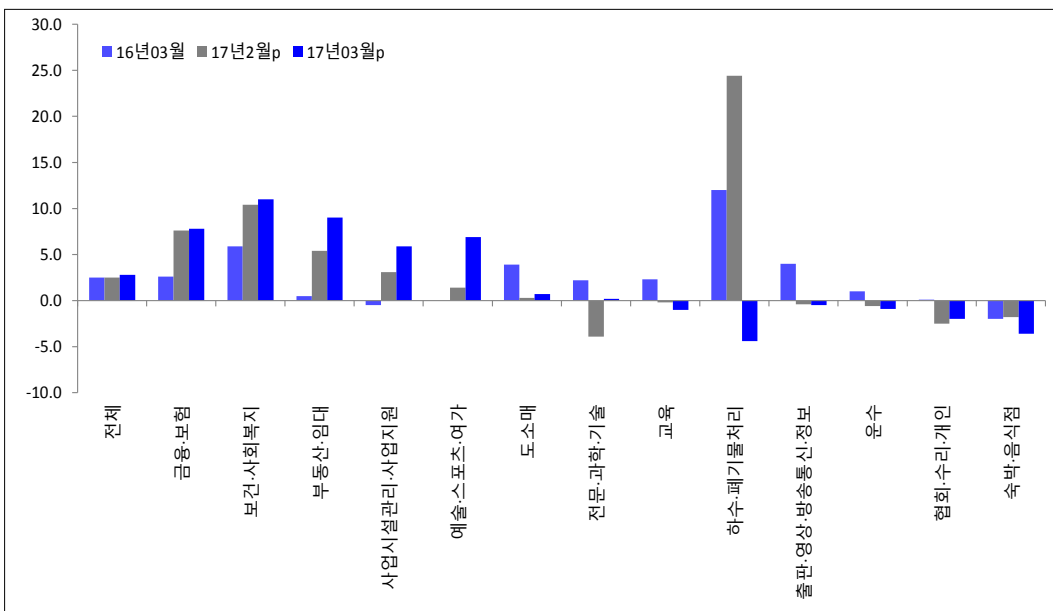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7년 2월, 3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17. 4), 『2017년 3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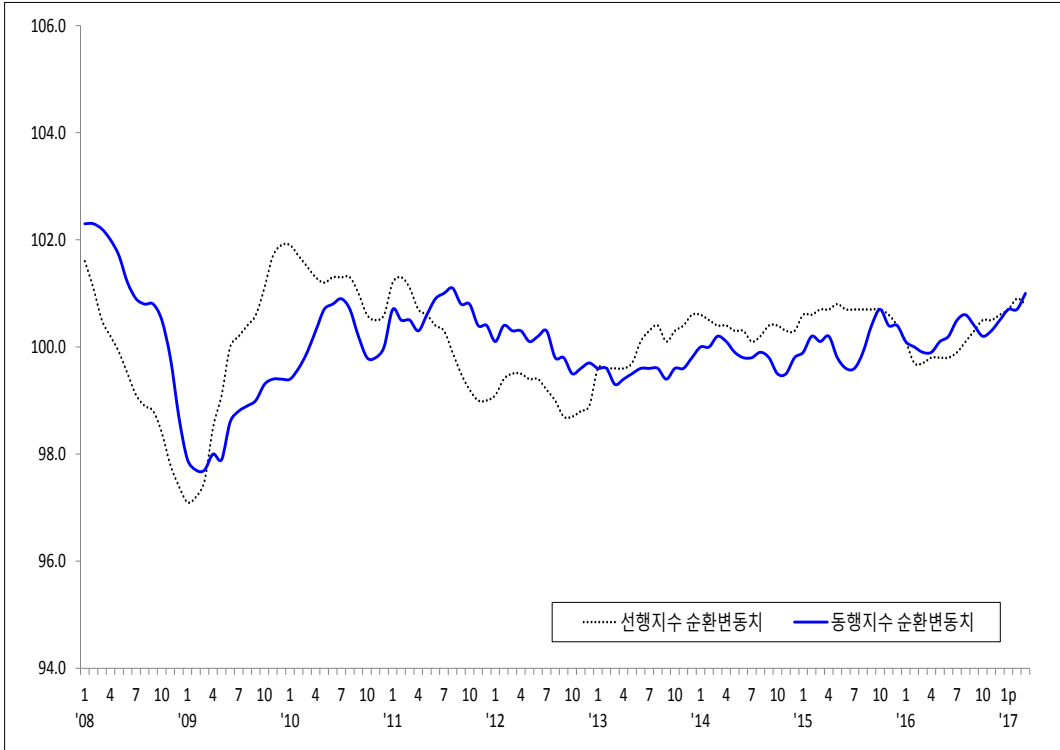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 고용 동향

◆ 노동참여 증가로 취업자와 실업률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 2017년 4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7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3천 명(1.9%)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252천 명(1.6%))보다 여성(271천 명(2.4%))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16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를 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더 많았음.
- 2017년 4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5%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4%)은 0.5%p, 여성(53.0%)은 0.8%p 상승해 남녀 모두 증가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4월 중 취업자는 26,57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4천 명(1.6%)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183천 명으로 증가폭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성은 241천 명 증가해 기존의 증가추세를 꾸준히 이어감(그림 1 왼쪽 참조).
 - 2017년 3월 이후 두 달 연속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함.
- 2017년 4월 중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영향으로 여성 고용률은 0.8%p 증가한 50.3%를 기록하였고, 남성 고용률은 0.3%p 증가한 71.2%를 기록함.
 -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고용률은 0.9%p 상승한 66.6%를 기록함(그림 1 오른쪽 참조).
- 2017년 4월 중 실업자는 1,17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함.
 -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로 2016년 4월(10.9%)에 비해 0.3%p 증가함(그림 2 왼쪽).
 - 특히 30대 실업률은 4.0%로 0.7%p 증가했으며, 2016년 7월 이후 증가추세가 확대됨.
- 2017년 4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3천 명(-1.1%) 감소함.
 - 비경제활동사유 중 ‘재학·수강’은 최근까지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나 2017년 3월 이후 감소폭이 커지며 4월 143천 명 감소하였고, ‘육아·가사’의 사유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6년 4월 대비 54천 명 감소함.

- 비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취업준비'인 경우는 20천 명 증가해 2016년 10월 이후 추세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2 오른쪽).
-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62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 명 감소해 증가추세가 꺾임.

〈표 1〉 주요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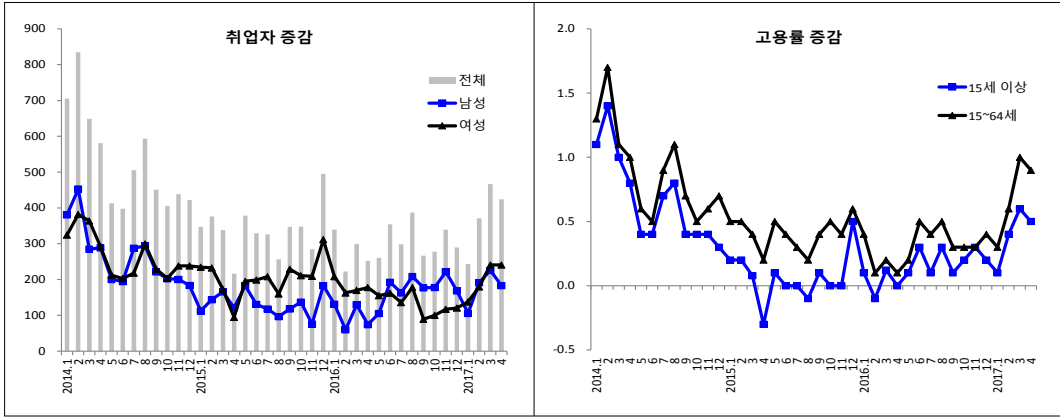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4월	4월	2월	3월	4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2,513	43,017	43,402	42,925	43,348	43,633	43,666	43,697
	(증가율)	(1.0)	(1.2)	(0.9)	(1.2)	(1.0)	(0.8)	(0.8)	(0.8)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7,266	26,954	27,228	27,138	27,409	27,751
	(증가율)	(2.6)	(1.4)	(1.3)	(0.9)	(1.0)	(1.5)	(1.7)	(1.9)
	취업자	25,599	25,936	26,241	25,900	26,153	25,788	26,267	26,577
	(증가율)	(2.1)	(1.3)	(1.2)	(0.8)	(1.0)	(1.5)	(1.8)	(1.6)
	증가수	533	337	300	216	252	371	466	424
	남성	(266)	(132)	(149)	(121)	(74)	(191)	(225)	(183)
	여성	(267)	(205)	(151)	(95)	(178)	(179)	(241)	(241)
	참가율	62.4	62.5	62.8	62.8	62.8	62.2	62.8	63.5
	남성	(74.0)	(73.8)	(73.9)	(74.2)	(73.9)	(73.2)	(73.8)	(74.4)
	여성	(51.3)	(51.8)	(52.1)	(51.8)	(52.2)	(51.6)	(52.2)	(53.0)
	고용률	60.2	60.3	60.5	60.3	60.3	59.1	60.2	60.8
	남성	(71.3)	(71.1)	(71.1)	(71.4)	(70.9)	(69.7)	(70.7)	(71.2)
여성	(49.5)	(50.0)	(50.2)	(49.8)	(50.1)	(48.9)	(50.0)	(50.9)	
실업자	937	976	1,025	1,053	1,075	1,350	1,143	1,174	
실업률	3.5	3.6	3.8	3.9	3.9	5.0	4.2	4.2	
남성	(3.6)	(3.7)	(3.9)	(3.8)	(4.0)	(4.8)	(4.1)	(4.4)	
여성	(3.5)	(3.6)	(3.6)	(4.0)	(3.9)	(5.3)	(4.2)	(4.1)	
비경제활동인구	15,977	16,105	16,136	15,971	16,120	16,495	16,257	15,947	
(증가율)	(-1.5)	(0.8)	(0.4)	(1.7)	(0.9)	(-0.3)	(-0.6)	(-1.1)	
15~64세	참가율	67.8	68.3	68.7	68.4	68.6	68.8	69.1	69.7
	남성	(78.6)	(78.6)	(78.9)	(79.0)	(78.8)	(78.8)	(79.1)	(79.8)
	여성	(57.0)	(57.9)	(58.4)	(57.7)	(58.3)	(58.6)	(58.9)	(59.4)
	고용률	65.3	65.8	66.0	65.6	65.7	65.6	66.1	66.6
	남성	(75.7)	(75.7)	(75.8)	(75.9)	(75.5)	(75.2)	(75.8)	(76.2)
여성	(54.9)	(55.7)	(56.2)	(55.2)	(55.9)	(55.9)	(56.3)	(56.8)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7. 4), 『2017년 4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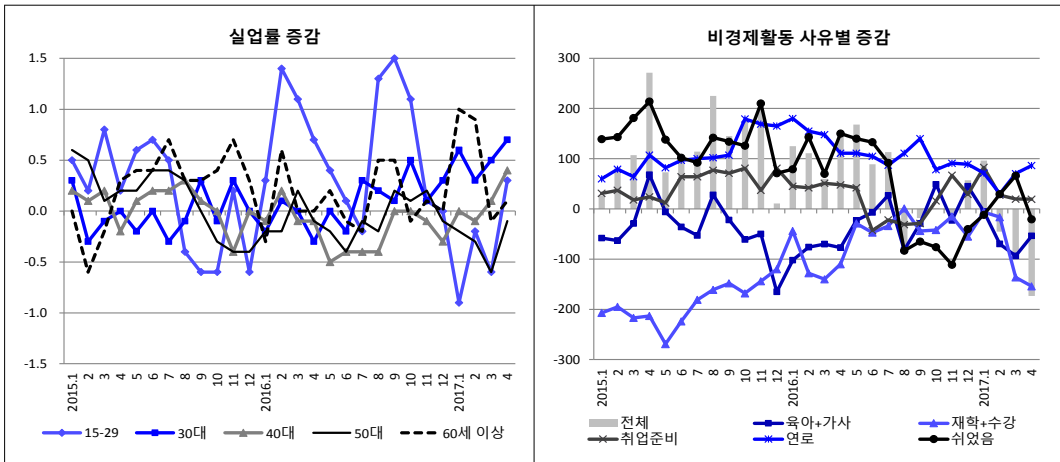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고, 취업 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40대와 20~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

- 2017년 4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255천 명, 6.5%)과 50~59세(168천 명, 2.8%), 25~29세(29천 명, 1.3%) 및 30대(9천 명, 0.2%)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40대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6년 이후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60세 이상과 50대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취업자 증가를 견인함(그림 3 참조).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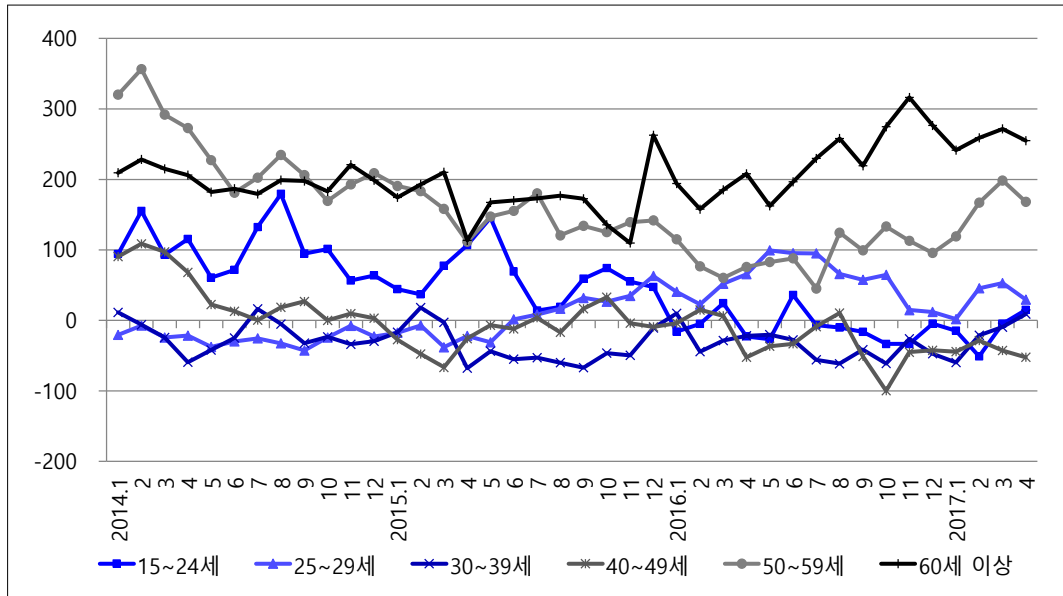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4월	4월	2월	3월	4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5,900 (0.8)	26,153 (1.0)	25,788 (1.5)	26,267 (1.8)	26,577 (1.6)
15~19세	244 (9.1)	245 (0.1)	240 (-2.0)	229 (3.0)	225 (-1.8)	272 (1.6)	237 (6.7)	264 (17.4)
20~29세	3,625 (1.6)	3,693 (1.9)	3,746 (1.4)	3,673 (2.2)	3,720 (1.3)	3,639 (-0.3)	3,686 (0.9)	3,725 (0.1)
20~24세	1,359 (6.4)	1,422 (4.6)	1,417 (-0.3)	1,418 (7.6)	1,399 (-1.3)	1,325 (-4.0)	1,355 (-1.4)	1,375 (-1.7)
25~29세	2,266 (-1.1)	2,272 (0.2)	2,329 (2.5)	2,255 (-1.0)	2,321 (2.9)	2,315 (2.0)	2,331 (2.3)	2,350 (1.3)
30~39세	5,714 (-0.4)	5,676 (-0.7)	5,640 (-0.6)	5,642 (-1.2)	5,620 (-0.4)	5,615 (-0.4)	5,621 (-0.2)	5,629 (0.2)
40~49세	6,682 (0.6)	6,668 (-0.2)	6,640 (-0.4)	6,684 (-0.4)	6,632 (-0.8)	6,568 (-0.4)	6,566 (-0.6)	6,580 (-0.8)
50~59세	5,845 (4.3)	5,994 (2.5)	6,086 (1.5)	5,983 (1.9)	6,059 (1.3)	6,102 (2.8)	6,173 (3.3)	6,227 (2.8)
60세 이상	3,489 (6.1)	3,661 (4.9)	3,884 (6.1)	3,689 (3.2)	3,897 (5.6)	3,592 (7.8)	3,983 (7.3)	4,152 (6.5)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5), 『2017년 4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7년 들어 증가세를 보였던 25~29세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4세의 감소 영향으로 20대 취업자 증가가 5천 명 증가에 그침.
-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0대는 지속적으로 취업자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함.

◆ 상용직 크게 증가한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증가 지속

- 2017년 4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7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3천 명(1.6%) 증가해 증가 추세가 이어졌으며, 비임금근로자는 6,7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천 명(1.7%) 증가해 증가세를 유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17년 4월 361천 명 증가해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함(그림 4 왼쪽).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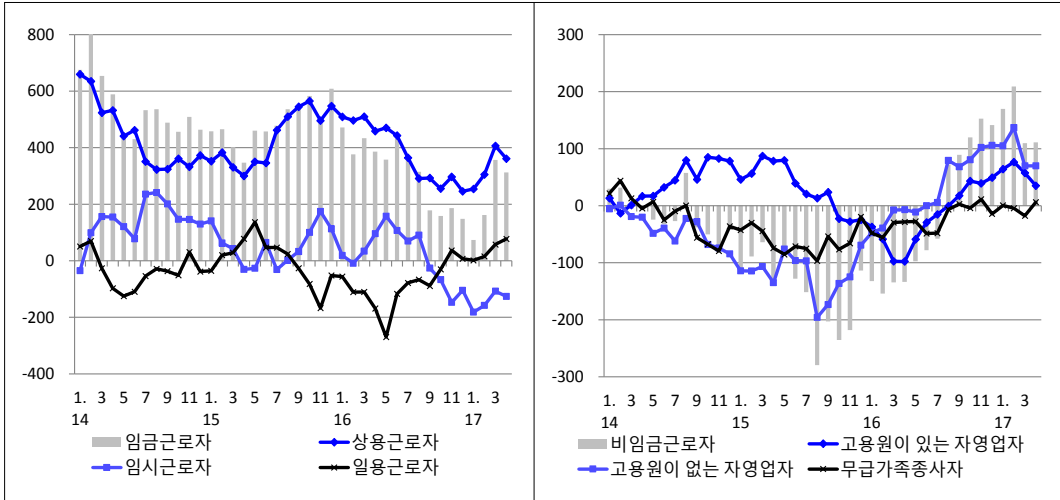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4월	4월	2월	3월	4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5,900 (0.8)	26,153 (1.0)	25,788 (1.5)	26,267 (1.8)	26,577 (1.6)
비임금근로자	6,857 (-0.2)	6,706 (-2.2)	6,689 (-0.3)	6,819 (-1.9)	6,686 (-2.0)	6,489 (3.3)	6,677 (1.7)	6,798 (1.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0 (2.7)	1,581 (2.0)	1,561 (-1.3)	1,629 (5.0)	1,531 (-6.0)	1,567 (5.1)	1,578 (3.8)	1,566 (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02 (-0.9)	3,982 (-2.9)	4,009 (0.7)	4,027 (-3.2)	4,020 (-0.2)	3,954 (3.6)	4,038 (1.8)	4,090 (1.7)
무급가족종사자	1,205 (-1.3)	1,144 (-5.1)	1,119 (-2.2)	1,164 (-6.0)	1,135 (-2.4)	969 (-0.5)	1,062 (-1.6)	1,142 (0.6)
임금근로자	18,743 (3.0)	19,230 (2.6)	19,546 (1.6)	19,081 (1.9)	19,467 (2.0)	19,299 (0.8)	19,589 (1.9)	19,779 (1.6)
상용근로자	12,156 (3.8)	12,588 (3.6)	12,974 (3.1)	12,448 (2.5)	12,907 (3.7)	13,154 (2.4)	13,281 (3.2)	13,268 (2.8)
임시근로자	5,032 (2.9)	5,086 (1.1)	5,104 (0.4)	5,016 (-0.6)	5,112 (1.9)	4,719 (-3.2)	4,895 (-2.2)	4,986 (-2.5)
일용근로자	1,555 (-2.2)	1,556 (0.1)	1,469 (-5.6)	1,617 (5.1)	1,448 (-10.4)	1,426 (1.1)	1,414 (4.3)	1,526 (5.3)
1~17시간	1,177 (0.4)	1,222 (3.8)	1,273 (4.2)	1,219 (6.1)	1,276 (4.7)	1,296 (9.6)	1,369 (12.5)	1,347 (5.6)
18~35시간	2,792 (-21.2)	2,776 (-0.6)	3,206 (15.5)	2,503 (10.1)	5,770 (130.5)	2,731 (4.6)	2,698 (4.6)	2,707 (-53.1)
36시간 이상	21,220 (6.4)	21,535 (1.5)	21,346 (-0.9)	21,883 (-0.3)	18,804 (-14.1)	21,225 (0.9)	21,861 (0.8)	22,234 (18.2)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8	43.6	43.0	44.1	41.5	42.8	43.1	43.3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5), 『2017년 4월 고용동향』.

[그림 4]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일용근로자는 2016년 4월 대비 78천 명 증가해 기존의 횡보를 벗어나 증가세를 보였고, 임시근로자는 126천 명 감소해 감소폭이 확대됨.
- 한편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4월 대비 70천 명 증가해 증가폭을 유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5천 명 증가해 증가폭이 둔화됨(그림 4 오른쪽).
- 2017년 4월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0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91천 명(-42.5%)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2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31천 명(18.2%) 증가하였음.
- 2016년 4월 당시 조사대상주간(2016.4.13.)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임시공휴일 영향으로 36시간 이상 취업자 및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시간 이하 단시간 취업자는 71천 명(5.6%) 증가해 증가세를 이어감.

◆ 건설업 취업자 가파른 증가세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둔화

-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10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감소폭이 석 달 연속 10만 명 아래로 줄어든 반면, 내수 중심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함.
- 2017년 4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에서 62천 명(-1.4%) 감소해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큰 감소를 했고, 뒤이어 사업서비스업에서 31천 명(-2.4%), 운수업에서 28천 명(-2.0%) 감소함(그림 5 참조).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4월	4월	2월	3월	4월
전 산업	25,599 (2.1)	25,936 (1.3)	26,235 (1.2)	25,900 (0.8)	26,153 (1.0)	25,788 (1.5)	26,267 (1.8)	26,577 (1.6)
농림어업	1,452 (-4.5)	1,345 (-7.4)	1,286 (-4.4)	1,428 (-8.6)	1,369 (-4.2)	965 (-1.0)	1,173 (-4.6)	1,355 (-1.0)
광업	13 (-15.8)	14 (2.3)	19 (38.2)	13 (-10.2)	18 (38.6)	21 (26.3)	21 (10.5)	21 (15.3)
제조업	4,330 (3.5)	4,486 (3.6)	4,481 (-0.1)	4,455 (3.9)	4,503 (1.1)	4,449 (-2.0)	4,441 (-1.8)	4,441 (-1.4)
전기·가스·증기·수도	83 (-8.3)	93 (12.2)	89 (-3.9)	95 (19.0)	90 (-5.1)	91 (1.1)	86 (-9.9)	84 (-7.0)
하수, 원료재생·복원	87 (20.1)	88 (0.9)	96 (9.0)	88 (-1.1)	98 (11.2)	93 (2.4)	102 (12.5)	101 (3.1)
건설업	1,796 (2.4)	1,823 (1.5)	1,845 (1.2)	1,838 (3.5)	1,800 (-2.0)	1,871 (8.4)	1,908 (9.4)	1,961 (8.9)
도매 및 소매업	3,792 (3.6)	3,783 (-0.2)	3,729 (-1.4)	3,775 (0.3)	3,694 (-2.1)	3,804 (1.8)	3,792 (3.1)	3,773 (2.1)
운수업	1,407 (-0.5)	1,409 (0.2)	1,412 (0.2)	1,415 (0.3)	1,424 (0.6)	1,391 (-2.4)	1,398 (-2.4)	1,396 (-2.0)
숙박 및 음식점업	2,098 (6.4)	2,179 (3.9)	2,277 (4.5)	2,112 (2.7)	2,233 (5.7)	2,268 (2.6)	2,230 (1.8)	2,266 (1.5)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4 (3.1)	772 (8.1)	786 (1.8)	770 (5.0)	755 (-1.9)	772 (2.3)	796 (5.4)	786 (4.1)
금융 및 보험업	837 (-3.0)	789 (-5.8)	797 (0.9)	784 (-8.2)	779 (-0.6)	776 (-0.7)	784 (1.0)	770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 (4.6)	535 (5.3)	570 (6.7)	523 (5.9)	538 (2.9)	605 (7.4)	614 (12.9)	626 (16.2)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1,025 (0.3)	1,048 (2.3)	1,102 (5.2)	1,009 (-1.6)	1,092 (8.2)	1,103 (1.8)	1,094 (1.4)	1,097 (0.4)
사업서비스	1,180 (0.6)	1,249 (5.8)	1,293 (3.5)	1,246 (4.2)	1,294 (3.8)	1,250 (-0.5)	1,249 (-5.0)	1,264 (-2.4)
공공행정 등	957 (-0.8)	936 (-2.2)	993 (6.1)	956 (-6.8)	1,016 (6.3)	922 (2.4)	1,025 (4.0)	1,032 (1.6)
교육서비스업	1,807 (3.4)	1,818 (0.6)	1,846 (1.5)	1,796 (-1.0)	1,839 (2.4)	1,863 (3.7)	1,899 (5.4)	1,927 (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1,693 (8.9)	1,770 (4.5)	1,851 (4.6)	1,759 (4.9)	1,844 (4.8)	1,802 (4.4)	1,911 (5.6)	1,912 (3.6)
예술·스포츠·여가	394 (0.4)	424 (7.8)	406 (-4.3)	446 (18.3)	389 (-12.7)	413 (3.7)	413 (10.1)	415 (6.8)
협회·단체·수리·기타	1,299 (-1.0)	1,277 (-1.7)	1,272 (-0.4)	1,288 (-2.1)	1,287 (-0.1)	1,250 (-0.3)	1,250 (-1.7)	1,269 (-1.4)
가구내 및 자가	116 (-32.5)	82 (-29.0)	69 (-15.6)	89 (-27.6)	70 (-21.3)	69 (-9.0)	72 (2.0)	70 (0.6)
국제 및 외국기관	14 (91.9)	18 (29.6)	16 (-11.4)	16 (22.3)	19 (20.1)	10 (-35.6)	10 (-34.8)	11 (-42.9)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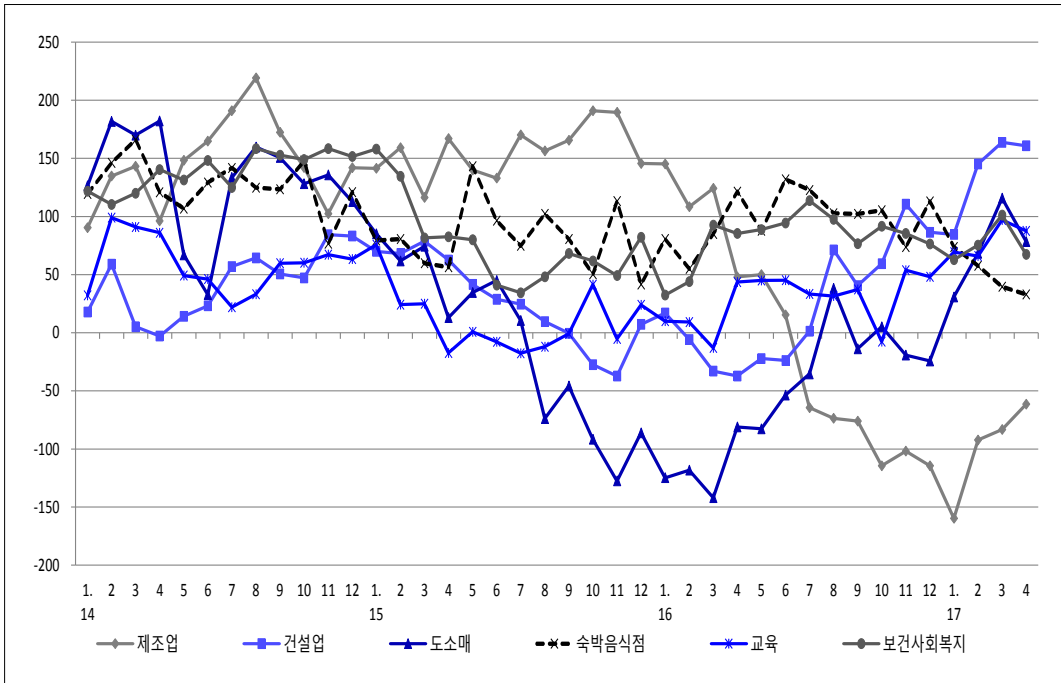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7.5), 『2017년 4월 고용동향』.

- 2014년 9월 이후 내내 플러스 증가를 지속하던 사업지원서비스는 2017년 2월 6천 명 감소로 돌아선 이후 3월 66천 명 감소, 4월 31천 명 감소로 감소를 지속함.
- 반면 건설업은 취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4월 전년동월대비 161천 명 증가해 가파른 증가추세를 유지함.
- 한편 2017년 들어 석 달 연속 가파른 증가를 하던 도소매업이 4월 78천 명 증가에 그쳤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16년 4월 대비 33천 명 증가에 그쳐 둔화폭이 가팔라져 자영업자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줌.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7년 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0.6% 감소

- 2017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63천 원(10.6%↓)임.
 - 2017년 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1.4% 감소한 3,517천 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한 1,486천 원임.
 - 상용근로자의 임금감소는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설 명절(2016년 2월→2017년 1월) 기간의 변화로 인한 특별급여 감소(55.2%↓)에 기인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7년 2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2.3% 하락함.
 - 2017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폭의 둔화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2.3% 하락함.

◆ 2017년 1~2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2.2%, 0.2% 상승에 불과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6.1% → 1.8%)이 크게 둔화함.
 - 이는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 기인함.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5.3%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 2017년 3월 협약임금 인상률 2.0%

- 2017년 3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2.0%로 전년동월(4.8%)에 비해 상승률 둔화
 - 2017년 3월 현재 임금결정 진도율은 0%대의 미미한 수준임.

〈표 1〉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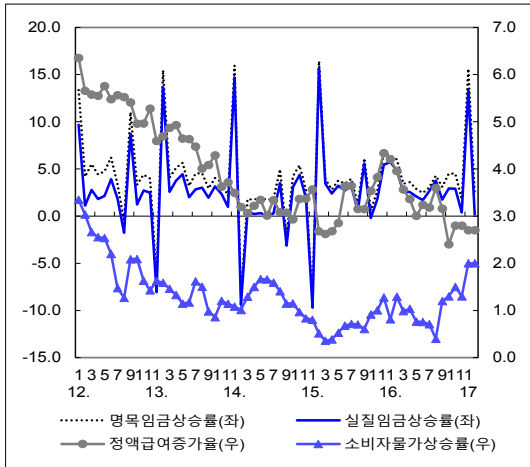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11 (3.9)	3,190 (2.5)	3,300 (3.5)	3,425 (3.8)	3,662 (6.2)	3,760 (6.0)	3,740 (2.2)	3,363 (-10.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490 (3.3)	3,623 (3.8)	3,970 (6.1)	3,926 (1.8)	3,517 (-11.4)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749 (3.3)	2,838 (3.3)	2,831 (4.1)	2,793 (4.0)	2,908 (2.7)
	초과급여	184 (1.7)	201 (9.3)	216 (7.4)	225 (3.8)	212 (5.1)	214 (6.6)	215 (1.5)
	특별급여	537 (1.8)	516 (-3.7)	525 (1.6)	560 (6.7)	815 (14.3)	963 (12.8)	803 (-1.5)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424 (2.7)	1,469 (3.1)	1,454 (2.2)	1,404 (2.1)	1,531 (5.3)	1,486 (5.8)
소비자물가지수	107.8 (1.2)	109 (1.3)	109.8 (0.7)	101.6 (1.0)	100.6 (0.9)	100.8 (1.1)	102.6 (2.0)	102.8 (1.9)
실질임금증가율	2.5	1.2	2.7	2.8	5.3	4.8	0.2	-12.3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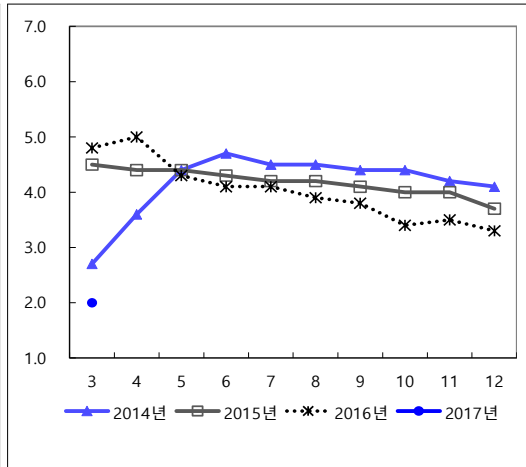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7년 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감소

- 2017년 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6%, 20.3% 감소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큰 폭의 임금감소는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율이 2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정액급여증가율 둔화폭이 컸으며, 여기에 설명절로 인한 특별급여 지급시기의 변화로 인한 특별급여 감소폭이 컸던 데 기인함.
 - 300인 미만 중 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또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지만 임금내역별 변화를 대규모 사업체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임. 사업체 규모별 모두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은 소폭 확대된 반면,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은 크게 둔화함.

◆ 2017년 1~2월 평균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감소

- 2017년 1~2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1.3% 감소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감소는 0%대 정액급여증가율과 특별급여 감소에서 비롯된 반면,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은 특별급여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증가율 확대로 인해 전년동평균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중소 규모	소 계	2,938 (3.6)	3,048 (3.7)	3,119 (4.3)	3,201 (2.7)	3,253 (4.3)	3,021 (-5.6)
	상용임금총액	3,110 (3.4)	3,228 (3.8)	3,294 (4.3)	3,391 (2.8)	3,422 (3.9)	3,168 (-6.6)
	정액급여	2,577 (2.9)	2,660 (3.2)	2,647 (3.4)	2,620 (3.4)	2,743 (3.6)	2,715 (3.6)
	초과급여	184 (6.6)	197 (7.3)	182 (7.2)	182 (8.3)	191 (5.0)	192 (5.4)
	특별급여	349 (5.3)	371 (6.1)	465 (8.7)	589 (-1.6)	488 (4.9)	261 (-55.7)
	비상용임금총액	1,434 (3.2)	1,486 (3.6)	1,440 (2.2)	1,390 (2.5)	1,522 (5.7)	1,478 (6.3)
대규모	소 계	4,849 (3.7)	4,959 (2.3)	5,885 (7.3)	6,044 (10.8)	5,810 (-1.3)	4,818 (-20.3)
	상용임금총액	5,017 (3.9)	5,131 (2.3)	6,016 (7.2)	6,178 (10.9)	5,938 (-1.3)	4,913 (-20.5)
	정액급여	3,438 (5.1)	3,519 (2.3)	3,534 (4.5)	3,454 (3.9)	3,566 (0.9)	3,487 (0.9)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25 (-2.4)	335 (-0.3)	310 (-4.7)	312 (-7.0)
	특별급여	1,230 (-0.7)	1,281 (4.2)	2,156 (13.5)	2,388 (25.0)	2,062 (-4.4)	1,114 (-53.3)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633 (1.9)	1,601 (-3.6)	1,638 (0.3)	1,59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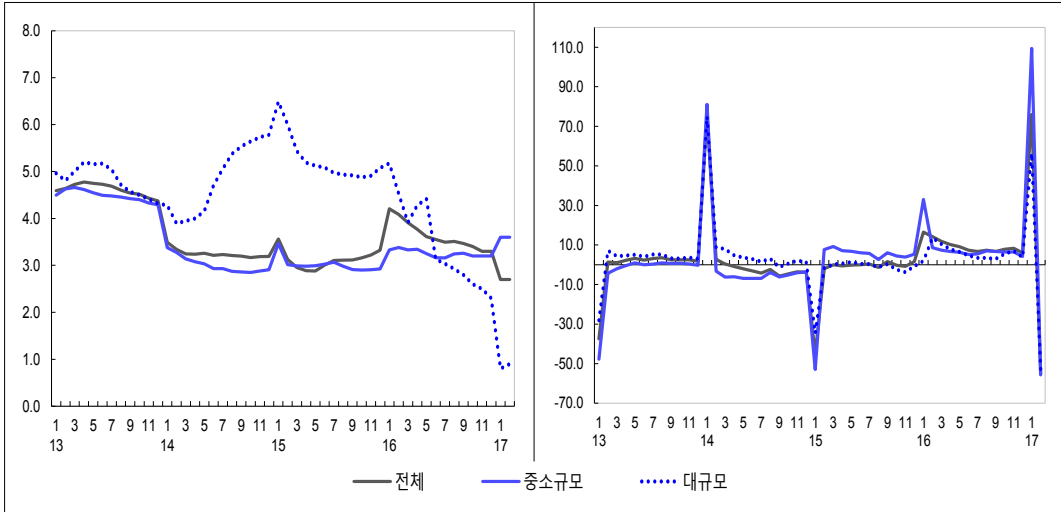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1~2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과 특별급여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2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산업에서 감소

- 2017년 2월 임금하락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제조업(17.4% ↓)이었음.
 - － 이외에도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11.2%), 교육서비스업(-10.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9.0%), 도매 및 소매업(-8.2%) 등의 부문에서 임금하락폭이 컸음.

◆ 2017년 1~2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광업(-0.9%)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7년 1~2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7.4% ↑)이었음.
 - － 금융 및 보험업(5.8%), 여가관련 서비스업(5.5%),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3%), 도매 및 소매업(5.3%)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5%대 임금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 제조업(1.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1.2%), 교육서비스업(1.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7%)은 평균 임금상승률(2.2%)에 미치지 못하는 1%대 임금상승률을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전 산업	3,300 (3.5)	3,425 (3.8)	3,662 (6.2)	3,760 (6.0)	3,740 (2.2)	3,363 (-10.6)
광업	3,676 (5.6)	3,796 (3.3)	3,828 (6.3)	3,714 (0.2)	3,794 (-0.9)	3,371 (-9.3)
제조업	3,617 (3.2)	3,755 (3.8)	4,258 (7.9)	4,366 (11.1)	4,301 (1.0)	3,606 (-17.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856 (5.4)	6,330 (8.1)	5,550 (8.6)	5,712 (6.8)	5,615 (1.2)	5,071 (-11.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102 (6.0)	3,133 (5.1)	3,238 (4.4)	2,972 (-5.2)
건설업	2,591 (3.8)	2,673 (3.2)	2,811 (4.9)	2,883 (3.2)	2,892 (2.9)	2,741 (-4.9)
도매 및 소매업	3,292 (2.7)	3,428 (4.1)	3,547 (5.6)	3,694 (3.8)	3,736 (5.3)	3,390 (-8.2)
운수업	2,952 (5.3)	3,102 (5.1)	3,122 (7.6)	3,350 (6.8)	3,214 (3.0)	3,099 (-7.5)
숙박 및 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80 (3.2)	1,898 (1.5)	2,020 (7.4)	1,892 (-0.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382 (7.1)	4,579 (5.7)	4,457 (1.7)	4,167 (-9.0)
금융 및 보험업	5,488 (4.9)	5,712 (4.1)	6,162 (4.2)	6,450 (3.6)	6,520 (5.8)	6,209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78 (6.7)	2,617 (5.6)	2,627 (5.0)	2,719 (4.4)	2,696 (2.6)	2,561 (-5.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783 (10.7)	4,842 (7.3)	5,001 (4.6)	4,551 (-6.0)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57 (3.5)	2,047 (0.6)	2,132 (3.6)	2,021 (-1.3)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4,095 (3.2)	4,071 (0.0)	4,152 (1.4)	3,651 (-10.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95 (2.8)	2,971 (1.6)	2,925 (1.0)	2,758 (-7.2)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628 (6.9)	2,684 (4.3)	2,774 (5.5)	2,640 (-1.6)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503 (9.6)	2,575 (7.6)	2,635 (5.3)	2,543 (-1.3)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한 165.9시간(월력상 근로일수 19.8일로 전년동월대비 1.6일 증가)

○ 2017년 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2.4시간 증가한 165.9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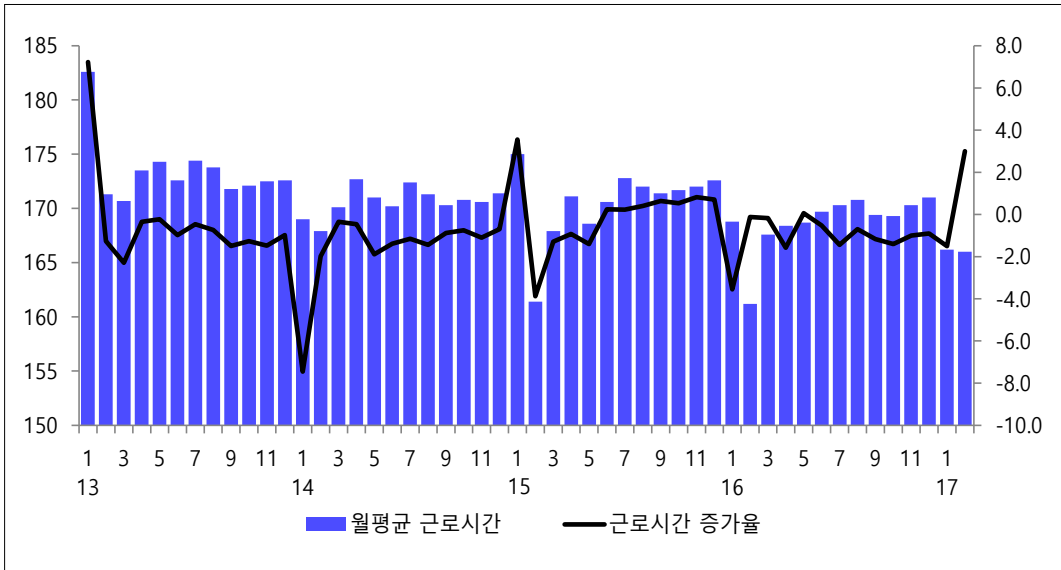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10.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함.

◆ 2017년 1~2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166.0시간(월력상 근로일수 19.8일로 전년동월대비 0.7일 증가)

○ 2017년 1~2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0.5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3.1% 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는 113.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1% 증가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1~2월 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7년 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증가로 인해 각각 전년동월대비 8.1%, 7.8% 증가(사업체규모별 1~2월 평균 근로시간도 근로일수의 증가로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증가)
- 2월 중소기업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66.2시간, 대규모 사업체는 164.5시간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5.7% 감소함.
- ◆ 2017년 2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산업에서 증가(산업별 1~2월 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0.8%)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7%)이었음.
 - 이 외에도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0.6%), 광업(10.5%), 금융 및 보험업(10.2%) 부문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10% 이상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79.1시간)이었으며 제조업도 178.8시간으로 나타남. 반면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4.3시간)이었으며 교육서비스업도 148.8시간으로 나타남.

○ 1~2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4%)이었으며 교육서비스업(5.2%)도 많이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 및 임대업의 근로시간(181.5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73.2(0.7)	172.0(-0.7)	161.5(-0.1)	153.7(4.1)	166.4(3.0)	166.2(8.1)
	상용 총근로시간	179.6(0.7)	178.6(-0.6)	166.6(0.1)	158.6(4.5)	171.7(3.1)	171.5(8.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7.4(0.8)	166.1(-0.8)	155.2(0.1)	147.4(4.8)	160.5(3.4)	160.2(8.7)
	상용 초과근로시간	12.2(0.0)	12.4(1.6)	11.4(-0.9)	11.2(0.9)	11.2(-1.8)	11.4(1.8)
	비상용근로시간	117.5(-1.5)	115.7(-1.5)	112.9(-1.8)	107.4(0.8)	112.3(-0.5)	110.1(2.5)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7(0.5)	166.9(-1.6)	159.6(-0.7)	152.6(2.8)	164.3(2.9)	164.5(7.8)
	상용 총근로시간	173.7(0.9)	170.8(-1.7)	161.0(-0.7)	154.0(2.9)	165.6(2.9)	165.7(7.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3(1.1)	157.0(-0.8)	147.3(0.3)	140.0(4.2)	153.7(4.3)	154.0(10.0)
	상용 초과근로시간	15.4(-1.3)	13.7(-11.0)	13.7(-11.0)	14.0(-9.1)	11.9(-13.1)	11.8(-15.7)
	비상용근로시간	86.9(-7.4)	85.5(-1.6)	113.7(-1.2)	107.3(-0.1)	122.2(7.5)	120.8(12.6)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전 산업	172.6(0.7)	171.0(-0.9)	161.2(-0.1)	153.5(3.9)	166.0(3.0)	165.9(8.1)
광업	179.2(-0.1)	179.0(-0.1)	167.3(-0.5)	158.6(3.6)	175.6(5.0)	175.3(10.5)
제조업	186.3(0.5)	184.5(-1.0)	172.5(-0.9)	164.1(2.9)	178.0(3.2)	178.8(9.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8(0.2)	167.5(-1.9)	159.3(-4.0)	151.7(-3.2)	166.5(4.5)	165.3(9.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0.0)	177.1(-0.4)	167.4(1.6)	160.5(6.9)	172.9(3.3)	172.9(7.7)
건설업	147.4(-0.7)	145.7(-1.2)	137.9(-0.9)	132.8(3.6)	143.2(3.8)	144.3(8.7)
도매 및 소매업	172.9(0.3)	171.4(-0.9)	161.0(-0.2)	153.5(4.4)	166.3(3.3)	165.6(7.9)
운수업	173.9(0.5)	172.3(-0.9)	164.6(-0.1)	158.4(3.1)	166.2(1.0)	165.8(4.7)

〈표 5〉의 계속

	2015	2016	2017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숙박 및 음식점업	175.3(0.1)	172.3(-1.7)	163.7(-2.3)	155.0(0.5)	167.9(2.6)	165.3(6.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3(1.5)	163.3(-0.6)	152.5(0.3)	144.8(5.2)	159.9(4.9)	160.1(10.6)
금융 및 보험업	164.3(0.6)	162.8(-0.9)	151.9(-0.6)	144.9(4.7)	160.1(5.4)	159.7(1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2.8(1.4)	191.2(-0.8)	183.0(0.9)	175.7(4.7)	181.5(-0.8)	179.1(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4.9(1.0)	163.3(-1.0)	152.1(0.2)	143.9(4.6)	159.1(4.6)	159.3(10.7)
사업서비스업	173.2(0.8)	171.7(-0.9)	163.1(0.0)	154.8(3.6)	165.0(1.2)	163.0(5.3)
교육서비스업	151.5(-0.3)	148.5(-2.0)	141.5(-0.1)	135.0(5.1)	148.8(5.2)	148.8(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1.5(1.1)	169.7(-1.0)	159.0(-0.3)	151.6(4.0)	162.6(2.3)	162.1(6.9)
여가관련서비스업	160.6(1.1)	159.7(-0.6)	149.5(0.5)	142.8(3.4)	153.8(2.9)	154.5(8.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3.7(0.5)	163.6(-0.1)	154.5(1.4)	146.8(6.3)	160.5(3.9)	159.7(8.8)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4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174건
 - 지난 4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159건)보다 15건 많은 수치임.
- 지난 4월 조정성립률 61.5%
 - 지난 4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4.9%에 비해 3.4%p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6년, 2017년 4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7. 4	174	153	83	34	49	52	9	43	3	15	21	61.5
2016. 4	159	131	72	24	48	39	4	35	5	15	28	64.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지난 4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5,237건
 - 지난 4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5,736건)보다 499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4.9%(537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5.1%(3,070건)를 차지함.

〈표 2〉 2016년, 2017년 4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7. 4	5,237	3,607	468	69	582	238	1,303	947	1,630
2016. 4	5,736	3,852	508	82	644	250	1,525	843	1,88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정부, 대통령소속 일자리위원회 출범준비

-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임.
 - 새 정부는 고용창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공약한 바 있음.
 -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5.16(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함.
-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다룰 예정임.
 -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함.
 -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되도록 함.
-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하며,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함.
 -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별로 설치하여,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였음.
- 일자리기획단 운영,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임.
 - 기획단은 유관 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며, 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준비 작업반,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하고, 곧 개소식 및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노동계, 127주년 노동절 집회 및 행사 개최

-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7년 세계 노동절대회를 개최함.
 -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할 권리 등을 ‘지금 당장’ 수용하라고 정치권 등에 요구함.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87년 ‘노동 3권 쟁취하자’ ‘노동악법 철폐하자’는 요구가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서 외쳐지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구호가 최저임금 노동자 500만 시대로 대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삶이 지난 30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함.
 - 또한 그는 “민주노총은 대선 직후 새 정부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으로 2천만 노동자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은 같은 날 127주년 노동절 기념식을 열고,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동존중 평등복지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짐.
 -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는 그동안 약자였고 노동은 천시받아 왔다”며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근본적인 힘은 독재정권과 관료, 재벌이 아니라 희생해 온 이 땅의 노동자”라고 밝힘.

◆ 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화 약속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공사가 계약 변경이나 입찰 변경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용역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5월 1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약속한 대로 인천공항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함.
 - 지부는 올해 3월 대선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은 전체 업무의 85%가 외주화돼 있고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진 상황”이라며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인천공항 특성을 고려해 간접고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해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고용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함.
 - 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며 “당사자인 인천

공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함.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하며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힘.
 - 문 대통령은 “직원들이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임.
 -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도 “대통령의 공약처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항의 핵심업무를 포함해서, 공항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주변 개발도 열심히 해 일자리 3만 명, 5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노조가 함께 논의해서 만드는 정규직화가 진짜 정규직화”라며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공항공사·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아자동차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리 가결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지난 4월 27일~28일 간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주)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꾸는 규약 변경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총회)를 실시함.
 - 갈등은 법원에서 기아차 사내하청 전체 공정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면서 기아차지부가 4,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일단 1,049명만 특별 채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하면서 시작됨.
 -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법원 판결보다 훨씬 뒤처지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독자 파업을 벌였고, 정규직 조합원들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다며 하청노조를 비판함.
 - 결국, 투표는 전체 조합원 3만 1,078명의 조합원 중 2만 6,711명(85.9%)이 참여했고, 1만 9,150명(71.7%)이 규약 개정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
 - 규약이 개정되면서 지부 밖으로 밀려난 옛 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1사1노조 분리총회가 가결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이 더욱 힘을 내서 투쟁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음.

- 금속노조는 5월 1일 성명을 내고 “지부가 추진한 1사1조직 분리총회가 많은 우려대로 가결됐다”며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드리게 돼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으며 대표노조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힘.
 - 같은 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내하청분회를 정규직 지부에서 분리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 노동자의 단결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모든 노력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힘.

◆ 화학공장 등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는 하절기를 대비하여 밀폐공간 유지·보수 작업이 집중되어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7월 두 달간 질식재해가 빈발하는 화학물질 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내 작업 등에 대하여 전국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약 600개소를 대상으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임.
 - 감독 실시에 앞서 5월부터 3개월간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밀폐 공간 감독 시에는 금년도 3월에 강화된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밀폐공간의 범위를 기존 17개 장소 외에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주가 수립해야 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밀폐공간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
 - 또한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금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착토록 하였으며, 산소공급 기능이 없는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공간작업 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함.
 -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선 사업주는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확인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작동을 당부함.
 - 또한 그는 “또한 근로자도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조치를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업주의 책임의식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조함.

◆ 고용부장관, 2016년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고시(4.27)

- 고용노동부는 2016년 신규 개발한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4.27(목)자로 확정·고시함.
 - 지난해 확정·고시(2016. 7. 22.)된 847개 NCS에 이어, 이번 고시로 총 897개 NCS 고시가 완료됨.
 - 2016년 신규 개발된 50개 NCS는 NCS 홈페이지에 공개 후 국민 의견수렴(2017. 1. 10~2. 19)·최종 검증 및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전기설비운영, 가스안전관리 등 현장수요가 많은 분야 및 소형 무인기(드론), 가상훈련시스템 등 미래유망 분야(26개)를 포함, 50개 NCS를 개발함.
- 미래유망 분야 관련 NCS 개발은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미래인력 양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산업 영역 및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며,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융합기술이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됨.
 - 미래유망 분야 NCS는 교육·훈련 현장에서 산업현장 변화를 반영한 실무중심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개발 고시된 NCS는 IoT, 소형 무인기 등 미래 유망산업 기술인력 변화와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일’을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연계되어 능력중심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 **KLI**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정재우,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